

## 이주빈 "'멜로가 체질' 전까지 아르바이트...동대문 밤시장 누볐다"

등록 2026.01.07 00:00:00



[서울=뉴시스] 6일 공개된 웹 예능 '살롱드립'에는 배우 이주빈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(사진=웹 예능 '살롱드립' 화면 캡처)  
2026.01.06. photo@newsis.com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배우 이주빈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시절을 떠올렸다.

6일 공개된 웹 예능 '살롱드립'에는 드라마 '스프링 피버'의 주역 안보현, 이주빈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

이날 이주빈은 "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. 피팅 모델도 하고 다니던 샵 데스크도 봤다"며 "드라마 '멜로가 체질'을 찍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"고 말했다.

이어 "피팅 모델을 하다 보니 옷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. 동대문 밤시장에서 니트 매장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3~4개월 일을 했다"고 밝혔다.

이주빈은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했던 상황을 회상하며 "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손님이 와서 '언니 이거 요즘 나온 거예요? 깔(색 깔) 몇 개예요?'라고 물었다"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"'미송(선입금 예약), 장끼(영수증) 같은 용어들도 재미있었다"며 웃었다.

장도연이 "지금까지 연락하는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있냐"고 묻자 이주빈은 "DM이 온다. 니트집 언니가 '나 기억나지? 너 진짜 배우 땀더라. 잘 보고 있다'고 한다"고 말했다.

그는 "당시 언니들이 '너는 이런 데 있을 얼굴이 아니야. 뭐 하다 왔지?'라고 물었다. 학생이라고 그러다가 캐물어서 아이돌 준

비도 했고 방송연예과라고 했더니 '너 빨리 나가.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'라고 독려해줬다"며 고마움을 전했다.

영상 말미에서 이주빈은 과거 일했던 매장과 매니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"실수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인센티브도 다 챙겨주셔서 감사하다. 사장님, 저 배우 됐어요"라고 인사를 건네 훈훈함을 자아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zoey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